

정해년(丁亥年) 새해에도
우리 모두 하나로 힘을 모읍시다



최영열 회장
(사)대한양돈협회

존경하는 전국의 양돈농가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술년(丙戌年)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정해년(丁亥年) 새해를 맞아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와 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삼가 인사를 올리며, 가내에 만복과 행운,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06년을 되돌아보면 2005년에 이어 PMWS 등 각종 소모성질환의 만연으로 농가의 피해가 극심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에 따라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상당히 높은 돈가가 유지되었지만 만성 소모성 질환에 의한 높은 폐사율로 풍요속의 빈곤을 겪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 대외적 압박과 함께 대내적으로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소, 냄새 민원으로 인한 농가 사육의욕 위축 심화,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대 등 어느 하나 만만히 해결할 수 없는 현안들이 우리 양돈농가들을 어렵게 했던 한 해였습니다.

사상 유래 없이 외국산 돈육이 20만톤이라는 높은 수입량으로 꼬리를 물었으며, 범람하는 수입 축산물들은 양돈농가에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 현장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람하는 수입산 축산물의 도전 가운데 우리 양돈농가들은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양돈자조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내 양돈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꾸준히 홍보하는 등 국내 양돈산업의 발전을 양돈농가 스스로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돈자조금 사업에 농가와 관련업계의 끊임없는 관심과 동참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 해 그동안 우리 양돈업계의 숙원이었던 가축분뇨자원화법 및 농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양돈산업이 새롭게 도약

정해년(丁亥年) 새해에도 우리 모두 하나로 힘을 모읍시다.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지금까지 환경·시설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양돈농가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축사 신축시 부담토록 되어 있었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등 그동안 우리 양돈산업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오던 제도들이 하나하나 개선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본회는 이러한 희망적인 부분에 더욱더 탄력을 받아 올 한해는 양돈산업 생존전략으로 '3·3·3전략'을 계획 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가축분뇨에 대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이 줄지 않은 것은 해양배출 저감을 위해서 우리 양돈농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실행이 필수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07년도에는 경종농가와 연계해 액비 유통 연계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경종농가 생산자 단체와 가축분뇨 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인식을 갖고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해 나가 향후 5년내 100% 가축분뇨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에도 끊이지 않는 소모성 질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모든 양돈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으로 양돈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높은 폐사율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국내 양돈업이 생존하기 힘든 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든의 안정화, 사양관리, 영양관리, 질병관리 등 어느 하나 소홀히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개선 없이는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없음을 명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2007년에는 모두 함께 질병근절에 노력 하도록 합시다.

또한 안전한 국산 돼지고기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본회는 외국산 돼지고기와 차별화를 위해 고품질, 안전 돼지고기 생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전국 양돈농가들의 자세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농가들 스스로 항생제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견지하고, 이를 위반시 우리 산업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는 자세로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양돈농가 여러분!

올해도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정해년(丁亥年) 새해에도 열심히 노력해 국내 양돈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의 양돈인은 물론 양돈업계, 학계, 정부 등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정해년 한해도 우리들이 계획한대로 꾸준히 그리고 착실하게 노력해 간다면 어떠한 난관과 고난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 양돈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양돈인들이 의지와 힘을 하나로 뭉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돈